

'자화상' 통해 화가내면 엿보기

서울미술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화가 70명의 자화상 1백점 전시

내가 부른 노래
내가 부르지 못한 노래들이
우르르
불 켜주고 달려오는
나일줄이야

이 찬란한 후회야 나일줄이야

시인 고은씨는 '자화상'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자화상의 의미를 찾고 있다. 자화상을 인간이 절대자나 어떤 대상들로부터 떠나서 자아를 발견하는 긴 여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내적인 형상이라

고 정의하는 고은씨의 이 시는 오늘날의 자아상실 시대가 갖는 비참함을 역설하고 있다.

자아상실의 시대에 한국인의 자아와 한국회화의 자아를 찾고자 마련된 「한국, 100개의 자화상」전이 지난달 24일 문을 열어 9월10일까지 구기동 서울미술관에서 계속 된다.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의 화가 70명이 그린 자화상과 자소상(自肖像) 1백점이 전시되고 있다. 시대, 양식, 기법을 넘어서 자화상이라는 독특한 주제에 대한 화가들의 다양한 심정을 볼

수 있는 이 전시회는 한국미술사의 한 흐름을 대변하는 기회로도 평가되고 있다.

스스로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과 추상화 시킨 작품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않은 자화상까지 전시되고 있어 자화상이 갖는 내면적 탐구의 영역도 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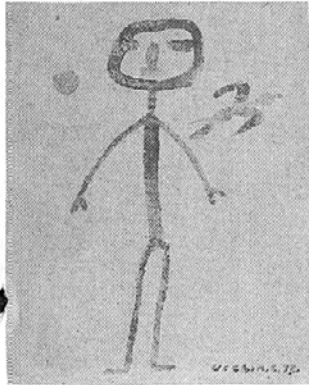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화가로는 윤두서, 강세황, 김홍도, 이인문 등의 자화상과 작품이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작가중에서 불교적 소재를 다루어 온 불자화가로 잘 알려진 고희동, 장욱진 이인익, 송영방, 오경환씨 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9월18일부터 10월8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고희동의 자화상, 연도미상



◇장욱진의 자화상, 1973년



◇송영방의 자화상, 1995년



◇이인익의 자화상, 1960년



◇오경환의 자화상, 1994년

감은사지 3층석탑 보수공사

경주 서악리·월성 나원리 석탑도

경북 월성군 감은사지3층석탑(국보 112호)을 경주지역 국보 및 보물석탑 3기가 해체·복원된다.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지난달 말 경주 서악리3층석탑(보물 65호)의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거쳐 이달말경 복원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월성 나원리3층석탑(국보 39호)과 감은사지3층석탑도 이

달말까지 예산심의를 거쳐 8월 초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체된 서악리 석탑은 지대석이 빠져있고 기단부와 탑신 받침이 파손돼 있어 재래방식으로 해체작업을 실시했다. 감은사지3층석탑과 나원리3층석탑도 오랜 풍화작용과 하중부하로 기단부와 받침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여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보수되는 감은사지3층석탑(27).

해김복진 사업회 구성

내달 18일 작품전 열어

철거되기전의 법주사 미륵대불을 조성했던 김복진(1901~41)선생의 업적 정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 김복진기념사업회'가 구성됐다.

서거 55주년을 맞아 구성된 기념사업회는 고인의 기일인 8월18일을 전후해 묘비건립, 문집간행, 학술행사, 김복진미술상 제정, '사진으로 본 김복진 조각작품전' '기념조각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32만여명 서명참여

JC, 문화재 환수운동

한국JC(청년회의소)가 지난 4월15일부터 광복 50주년을 맞아 벌여온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백38개 지구에서 3달간 진행된 서명모금운동 결과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32만1천 6백88명, 모금액은 2천1백46만7천여원으로 나타났다.

극단 '종' 해체

단장 일봉스님 임적으로

불교포교극단 '종(鐘)'이 사실상 해체됐다. 극단 종의 해체는 지난달 22일 단장 일봉스님의 임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20여명의 단원들도 모두 극단을 떠났다.

극단 종은 91년에 창단돼 첫공연 '서천꽃밭'을 무대에 올린 이후 '사모곡' 등으로 수차례 지방과 서울공연을 가졌다.

한편 지난달 임적한 일봉스님은 67년에 출가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초기극단이었던 '대중극회' '국립극단' 등에서 수년간 단원생활을 했다.

김미숙씨 전통춤사위

'승무' '불교의식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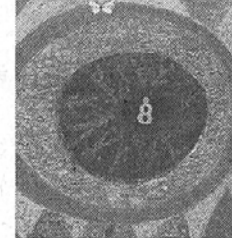
한국출판 김미숙씨(부산여전 무용과 학과장)의 '제5회 김미숙의 춤' 공연이 지난 10일 부산문화관에서 열렸다.

지난 84~90년 네 차례의 상정성 등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준다.

에 치중해 왔던 경향과 달리 김교수가 재구성 안무한 <승무> <태평무> <불교 의식무> 등 전통춤의 묘미를 선사했다.

양성욱씨 개인전

24일까지 대구 송아당서



◇양성욱작 '나속의 나'

양성욱씨의 개인전이 15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대구 송아당화랑(425-6700)에서 열린다.

'간헐자유', '자아를 찾아서' 등의 작품들과 '나속의 나' 연작시리즈가 주목되고 있으며 작가적 상상력과 추어의 공간에 날아든 나비의 상징성 등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준다.

불교 뉴스·신행프로 '세계로'

btn BBS, 미국·유럽등 보급 긍정 검토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뉴스와 신행프로그램들이 미국 유럽등 전세계에 보급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방송은 지난달 26일 총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주 한인방송에서 뉴스제공 의사와 캐나다, 유럽등에서도 고승열전

선시방송 등의 7~8개의 프로그램 공급의향을 타진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방송국 차원의 세부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

다고 말했다. 불교텔레비전도 지난 10일 새얼미디어 측에서 프로그램을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텔레비전 측은 '제작프로그램의 해외공급은 장기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안을 정해 시일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불교관계 프로그램 공급주머니 해도하는 현실에서 방송가에서는 '외국공급업체에 대한 재정구조를 엄격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TV의 신행프로 '구화산 지장법사'가 22일부터 방송된다. 사진은 구화산 육신보전.

불교TV '새프로 새단장'

지장법사·연작시리즈등 신설

불교텔레비전은 일부프로의 종료와 관련하여 새프로를 신설한다.

상장법사 후편으로는 오는 22일부터 구화산 지장법사가 방송된다.

또 실크로드 후편으로 오는 26일부터 방송될 프로는 4부작 부처님의 사인 앙코

르와트와름, 신들의 땅 네 팔, 알렉산드라 데이빗 닐, 2부작 갠지스강 천연 곤륜산맥, 소림사스님 구계, 3부작 승무 탄트라외의 세계, 행복과 평화의 조건, 선의 세계 2부작 활불, 불크스 5부작 예술 과학 그리고 불교의 민남이 방송된다.

btn 불자주식 공모

15억3천여만원 증자

불교텔레비전의 불자주식공모금이 주금납입일인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2천8백45명의 불자가 참가, 최종마감액 15억 2천5백 3십8만 5천원을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증자신청 했다.

이번 주식공모에서는 서울(5억3천)부산(4억7천) 경기(1억3천)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단별로는 조계종(7억4천) 진각종(1억) 태고종(2천2백)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btn 특강' 공개방송

고건, 조정래씨등 출연

불교텔레비전은 사회제명인사를 초청하여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는 'btn 특강' (목 12:30~13:20)공개방송을 매주 일요일 오후 12:30분 양태동 구룡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8월 한달간 출연 예정인사로는 고건 명지대총장, 조정래, 최인호, 차범석, 김홍경씨 등이다.

"32만9천 가구서

케이블TV 시청한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일 케이블TV 현황을 통해 현재가입세대는 총 32만9천여 가구라고 밝혔다. 이중 시청가구는 32만9천여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범처 '불심시심'입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〇〇명
통신과정 〇〇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 및 종교학	환경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